



佛心·孝도랑 곳곳에

대현그룹 손현수 회장 28일 안동에 홍효사 개원 “전국 지사마다 절 세워 전법... 자비·효도 선양할 터”

8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개원하는 도심포교당이자 불교회관인 홍효사(弘孝寺). 홍효사를 머릿속에 떠올린 한 기업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념이 교차한다. 기억은 27~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늘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시조 할아버지의 지극했던 효심과 그 효심으로 만들어진 홍효사라는 절. <삼국유사>의 기록을 찾아 홍효사가 있었다는 경주 곳곳을 누볐지만 어디서도 그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문중 사람들을 초청해 홍효사를 복원하자고 제의하고 복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홍효사가 있었다는 자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허가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자신의 고향이자 절골이었다고 전해지는 안동 약산에 사찰을 지었다. 부처님의 은혜와 불교의 자비·효도사상을 널리 선양한다는 뜻에서 절 이름을 흥은사(弘恩寺)라 했다. 1997년 가을, 흥은사는 그렇게 20여년 간의 긴 세월동안 조상의 효심을 잊지 못하는 한 불자의 정성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다. 흥은사가 산 속에 위치해 있다보니 찾아오는 불자가 많지 않았다. 안되겠

다 싶어 도심 속에 포교당을 두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절 이름을 그렇게 애매하게 찾았던 홍효사로 지었다. 신라 제42대 흥덕왕 때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해 국호(國號)라는 칭호를 받았던 홍효공(손순)의 효심을 불교의 효사상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대현그룹 손현수(76·사진) 회장. 불교계에서는 불교산악인연합회 명예총재이자 불교방송 이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신심깊은 불자인 손회장에겐 홍효사는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손 회장에겐 이루고 싶은, 아니 이뤄야 할 원이 있다. 흥은사와 홍효사는 그 원을 이를 출발

다. 흥은사와 홍효사를 포함해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절은 사단법인 흥은선원에 속하게 된다. 홍효사에 이어 곧바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현그룹 빌딩 내에도 법당을 개원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세 곳의 대현그룹 사찰이 생기는 셈이다. 어떤 이들은 돈 있는 기업인에게 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 돈으로 되는 일일까. “기업이 이만큼 성장했으니 다시 돌려드려야지요. 여생을 부처님 가르침을 더 배우면서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룹의 지사마다 절을 다 짓고 나면 전국 각지에 도 절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룹 사보에 언제나 부처님 말씀을 읽고, 그룹경영이라는 무거운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는 손 회장. 직원과 그 가족들의 노고에 불심으로 답례를 하고 있는 손 회장은 모태신앙 속에 자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화로움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명우 기자 mwu@buddhapia.com**

“청규 만들어 수행풍토 진작”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공동청규제정 등 논의

공동대표에 현산·해국 스님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종단 내 주요현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수행풍토 진작에 나선다. 전국선원수좌회는 8월 16일 동화사 기본선원에서 전국선원 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24일 세부논의를 갖기로 했다. 이날 수좌회는 공동대표에 현산·해국 스님을, 선원장회의 의장에 영진 스님을 선출하는 등 임원진도 개편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행풍토 진작을 위해 백장청규와 같이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시대에 맞는 선원공동청규 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으고 선원장, 선덕, 한주, 입승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청규제정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키로 했다.

또 영축총림 법장 추대와 관련 20만여 명 이상 성만 등의 종헌종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 요건이 무시돼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종단의 각종 선거법에 대해서는 승가전통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진급 스님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무원노조 설립은 비불교적이며 교단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buddhapia.com에 가면 내집 마련이 공짜!

- 사찰/단체 홈페이지 (http://homp.buddhapia.com)
- 불교동호회 커뮤니티 (http://cafe.buddhapia.com)
-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http://blog.buddhapia.com)

불자 힘 내원암 지켰다

친일파 이해창 후손 땅소송 “취하”

불교계의 단합된 힘이 수락된 내원암을 지켰다. 수락된 내원암을 상대로 토지 4만8천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취하의 소송을 제기했던 반민족행위자 이해창 후손 21인이 8월 18일 소송을 취하였다. 원고측은 “사적인 이유로 소송 취하한다”고 취하 사유를 밝혔다. (본지 538호 1면 기사 참조) 하지만 원고측이 소송을 취하하게 된 데는 8월 8일 봉선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봉선사는 “민법상의 소유권 규정을 반민족 행위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3·1정신 계승을 표방한 헌법 전문에 반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17일 친일파후손의 재산찾기 소송을 규탄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불교계의 동화 움직임을 나타

나고 있다. 하지만 소 취하에 대해 봉선사 측은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첫 재판이 9월 1일로 잡혀있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한 데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출하면서 봉선사의 행보는 내원암 지키기 차원을 넘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찾기 소송 근절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봉선사 측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봉선사 총무과장 해문 스님은 “천만 불자가 단결해 내원암을 지킬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한 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8월 19일 이해창 후손이 내원암 소송을 취하한 것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박익순·유철주 기자**



순천 송광사에서 3개월간 수행한 남자들이 8월 19일 하안거 해제 법회후 법당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만행길에 화두 짊어지고 다녀야”

을유년 하안거 해제... 99곳 선원 2254명 참여

불기 2549년 을유년 하안거 해제 법회가 8월 19일 조계종립 순천 송광사를 비롯해 전국 선원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선

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집계한 <을유년 하안거 선사방합록>에 따르면, 이번 하안거에는 전국 99곳 선원(총림 5곳, 비구선원 59곳, 비구니선원 35곳)에서 2254명(비구 1110명, 비구

니 964명, 총림 180명)이 참여했다. 조계종 중흥 법전 스님은 해제 법회에서 “금일 해제대중은 한 철 동안 지은 살림살이로 여기에 대해 분명한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한철살림살이로 제대로 된 한마디를 할 수 없는 남자라면 만행길에 이 화두도 함께 결망 속에 짊어지고 다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국총림 해제법회 8면** **남동우 기자 dnam@buddhapia.com**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
 ‘계율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
 법주: 지은 스님(8월 27일 오후 3시)

‘할’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는 자발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할’과 같죠

그림·조태호

마성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한국불교 세계화의 꽃’ 하와이 성지순례 및 역사문화관광

해외 最大 한국사찰 무량사 20년불사 회향기념 ·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초청 대법회

현대불교신문사는 하와이 무량사와 함께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하와이 성지순례 및 역사 문화관광을 갖습니다. 한국 이민사의 첫 장인 하와이는 한국불교 해외 포교에서도 건과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미주포교 41주년을 맞는 올해로 하와이는 불자수가 10만 명을 넘어, 미국 캐나다 남미를 잇는 미주포교 전진기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최대 규모의 한국 사찰 무량사가 창건 30주년을 기념하며 전통한국 가람건축 양식으로 조성해온 20년 불사를 모두 회향하는 낙성대법회를 열고 풍성한 기념행사를 엮습니다. 도선사와 명원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이 뜻깊은 행사가 동참하셔서, 하와이 성지순례와 함께 하와이 역사 문화를 체험하는 귀한 인연을 지읍시다.

- 공동주최: 하와이 무량사 · 현대불교신문사
- 일 정: 2005년 9월 24(토) ~ 29(목) 5박 6일
- 주요 프로그램
 -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초청 무량사 문화원 준공기념 법회
 - 무량사원 준공기념 공연 및 만찬(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 무량사 요양원 건립 기금모금 담원 김창배 화백 초대전
 - 선원장 초청 간담회 및 입제(조계종 초대 기본선원장 진어스님)
 - 하와이 역사문화관광
- 동 참 금: 169만원(비자비용 별도)
- 신청 마감: 1.미국 비자 가지신 분: 2005년 9월 15일까지
 2.미국 비자가 없으신 분: 2005년 8월 29일까지
 (비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주시면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 동참 및 비자 문의: 현대불교신문 최연규 팀장 02)2004-8295 / 018-366-1002

날 짜	도 시	교통편	시 간	주요 일정
제 1일 9/24 (토)	인 천 호놀룰루	KE 051 전용버스	20:00 09:35 15:00 19:00	인천 국제 공항 출발 호놀룰루 도착 후 입국 수속 완료하 환원 레이 중점 탄탈루스언덕, 이올라니공전등 시내관광, 무량사 도착 낙성식 (문화원 준공법회 참석) 자비 만찬(힐튼 하와이언빌리지)
제 2일 9/25 (일)	호놀룰루	전용버스	08:00 15:00	진주안 와이키키해변 등 관광 · 태평양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1641년 12월7일 일본군 기술자전 무대. * 선원장초청 간담회 참석(무량사)
제 3일 9/26 (월)	호놀룰루	전용버스	전 일	오하우섬 일주 관광 · 232M의 분화구 정상에서 와이키키 조망을 볼 수 있는 다이아몬드포인트 분화구, 한국지도마을, 마카후포인트, 오자비비, 42층이상의 펠리클 빌딩, 풀리네시안 마을을 재현한 풀리네시안 문화센터, 벤치비치, 피안마을 농장등 관광
제 4일 9/27 (화)	호놀룰루	전용버스 국내선 전용버스 국내선	전 일	비숍박물관, 팔리바리산, 와이메아 폭포공원 * 환하시는 경우(실비250\$ 추가) 1. 마우이섬 관광 · 카이아팔리, 라하이니, 마우이 트로피컬, 이아오, 온조초지대, 할레이 할라 국립공원 등 2. 빅아일랜드(화산섬) 관광 · 하와이에서 가장 늦게 형성된 섬으로 아직까지 화산이 살아있는 대자연 경관을 보임
제 5일 9/28 (수)	호놀룰루	KE 052	11:40	호놀룰루 출발
	인 천		16:10 9/29 (목)	인천 국제공항 도착